

국내외 경제
현안과 과제

2010. 9. 17.

한국 서비스산업의 7대 취약점

— OECD 국가 비교 분석 —

■ 연구 개요

정부는 만성적인 서비스수지 적자를 축소하고 고용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 대책을 마련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서비스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거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서비스산업의 문제가 비단 한국만 해당하는지를 OECD 국가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 데이터는 OECD 32개국 중 자료 분석이 가능하고 1인당 GDP가 2만 달러 이상인 24개국을 대상으로 했다.

■ 한국 서비스산업의 국제 위상 비교

첫째, 한국의 서비스산업이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하위를 기록했다. 2008년 한국의 서비스산업이 총산출과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7.9%와 60%로 OECD 평균인 58.1%와 70%에 못 미쳤다.

둘째, OECD 국가들의 1인당 GDP가 2만 달러에 진입할 당시를 비교한 결과 한국의 서비스산업이 총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하위를 기록했다. OECD 국가들의 1인당 GDP가 2만 달러에 진입할 당시 서비스산업이 총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산출한 결과, 한국(2007년)은 39.9%로 OECD 평균인 54.2%에 비해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셋째, 서비스수지를 기준으로 한국은 분석대상 24개국 중 22위를 기록했다. 2005년 이후 서비스 적자는 급증하여 2007년에는 사상 최대치인 197.7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독일, 일본에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넷째, 한국의 서비스산업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서비스산업 종사자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2005년 2.5%에서 2007년 2.4%, 2008년에는 1.5%로 하락했다. 2008년 한국의 전산업 종사자 중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67.3%로 22위를 기록했다.

다섯째, 한국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최하위를 기록했다. R&D 중 서비스산업 비중은 2001년 12.6%에서 2007년 7%로 하락했다. 또한 설비투자 중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2006년 40.5%에서 2009년에는 39.1%로 하락했다.

여섯째, 한국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최하위를 기록했다. 2008년 한국 서비스산업 생산성(1인당 부가가치)은 3.6만 달러로 24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제조업 생산성이 2000년 4.8만 달러에서 8.2만 달러로 증가한데 반해 서비스업은 3.2만 달러에서 3.6만 달러 증가하는데 그쳤다.

일곱째, 한국 서비스산업의 영세성은 1위를 기록했다. 2007년 한국의 서비스산업 중 자영업 비중은 20.8%로 OECD 분석 대상국 중 1위를 기록했다. 또한 서비스산업 종사 기업 중 종업원 4인 이하 기업비중은 83.1%에 달했으나, 이들 기업의 매출비중은 17.2%에 불과했다.

■ 정책적 시사점

첫째, 한국의 서비스산업이 총산출과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OECD 국가에 비해 낮으므로 서비스산업의 경제 기여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서비스산업의 대외 의존도가 높으므로 서비스 수지 적자를 축소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의 서비스산업이 고용과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으므로 서비스산업에 대한 요소 투입 비중을 높여야 할 것이다.** **넷째, 한국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낮고 영세성은 높으므로 투입 대비 산출 및 부가가치를 확대하는 서비스산업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1. 연구 개요

○ 정부는 만성적인 서비스 적자를 축소하고 고용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 대책을 마련함

- **(참여정부)** 서비스수지 적자 및 서비스 개방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서비스산업 발전 대책을 마련함

- 1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2006.12) 대책은 서비스수지 개선을 목표로 함
-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2007.07) 대책은 관광·레저분야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을 목표로 함
- 3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2007.12) 대책은 문화·디지털콘텐츠·관광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함

- **(세정부)** 경제 성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함

- 1단계 서비스선진화(Service PROGRESS I : 2008.04) 방안은 서비스수지 적자 유발 분야인 여행수지와 사업서비스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함
- 2단계 서비스선진화(Service PROGRESS II : 2008.09) 방안은 서비스산업 규제 합리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대책을 마련함
- 3단계 서비스선진화(Service PROGRESS III : 2008.12) 방안은 서비스산업을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서비스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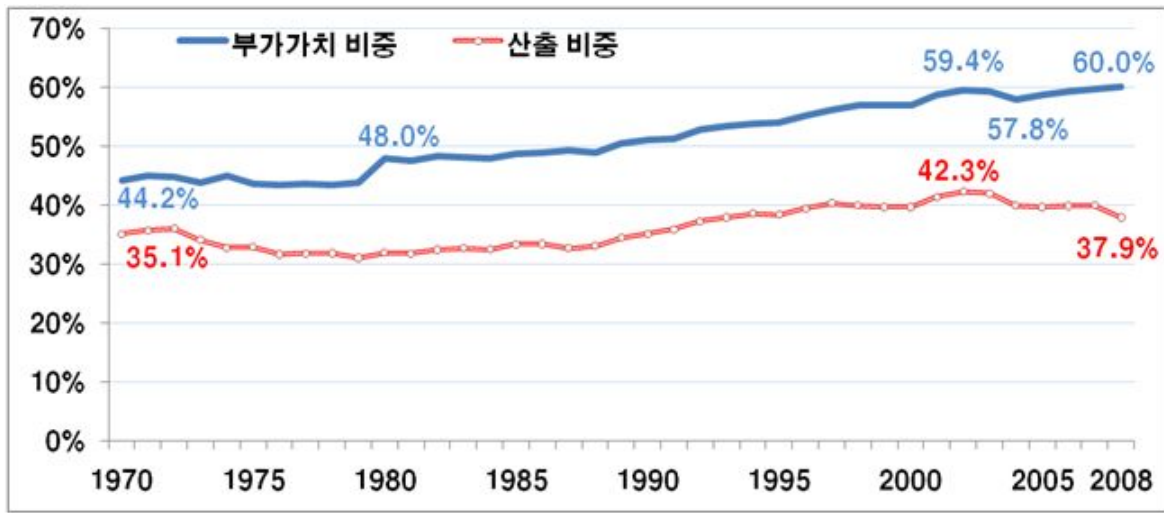
- 서비스산업이 총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 감소하고 있음

- 1970년 35.1%에 불과했던 서비스산업의 산출 비중은 2007년 39.9%를 기록했으나 2008년에는 37.9%로 2%p 감소함

- 서비스산업이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세는 둔화됨

- 1970년 44.2%에 불과했던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은 1980년 48.0%로 급등했고, 이후 상승세를 보여 2002년 59.4%를 기록함
- 부가가치 비중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2004년 -2.5%에서 2005년 1.4%로 상승했으나, 이후 하락세를 보여 2008년에는 0.5%를 기록함

< 서비스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



자료 : OECD ST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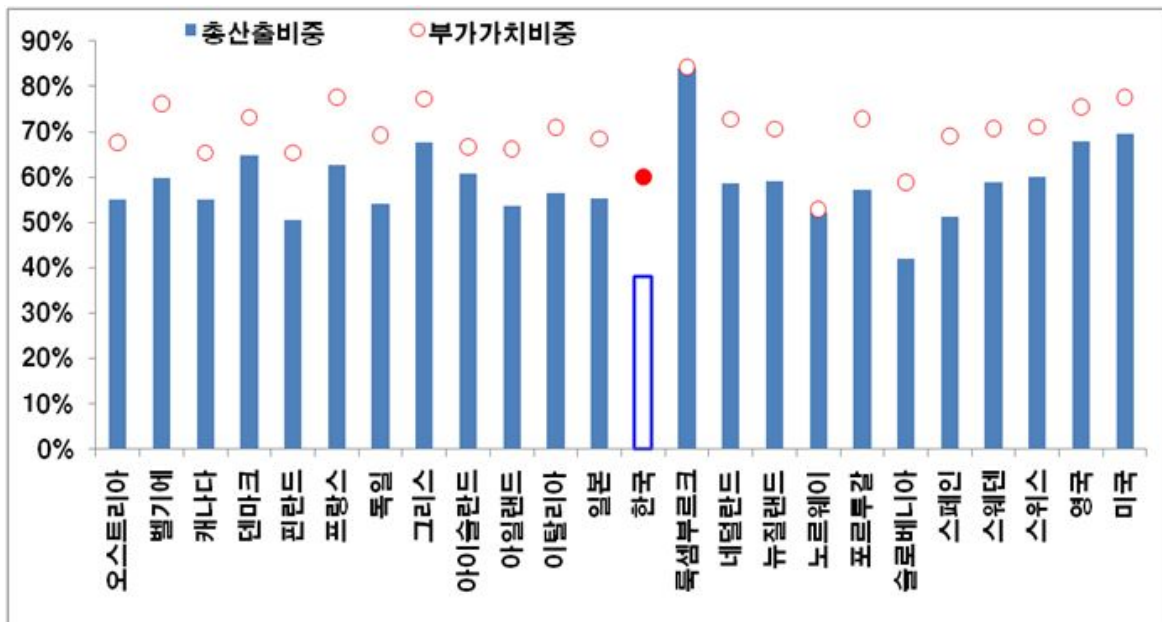
- 본 연구는 최근 들어 서비스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 비단 한국만의 문제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 서비스산업의 발전 정도와 문제점을 OECD 국가 비교를 통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분석 데이터는 OECD 32개국 중 자료 분석이 가능하고 1인당 GDP가 2만 달러 이상인 24개국을 대상으로 함
 - OECD 32개 국가 중 호주의 데이터가 부족하고, 2만 달러에 진입하지 못한 국가는 체코, 헝가리, 멕시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칠레, 터키의 7개국임
 - 분석대상 24개 국가에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이 포함됨

2. 한국 서비스산업의 국제 위상 비교

○ 한국의 서비스산업이 총산출과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OECD 분석 대상 24개국 중 각각 23위와 최하위를 기록함

- 2008년 한국의 서비스산업이 총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분석대상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함
 - 2008년 서비스산업의 총산출 비중은 37.9%로 OECD 평균 58.1%에 미치지 못함
- 2008년 한국의 서비스산업이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0%로 OECD 평균 70.0%에 미치지 못하며, 분석대상 국가 중 22위를 기록함
 - 2008년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60.0%로 OECD 평균 70.0%에 미치지 못함

< OECD 국가들의 서비스산업 비중(2008년) >



자료 : OECD STAN.

주 1. 총산출의 경우 캐나다, 일본은 2005년, 아일랜드,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페인은 2006년, 스웨덴, 영국, 미국은 2007년 기준임.

주 2. 부가가치의 경우 일본, 뉴질랜드, 포르투갈은 2006년 기준, 미국은 2007년 기준임.

○ OECD 국가들의 1인당 GDP가 2만 달러 수준에 진입했을 때, 한국의 서비스산업이 총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하위를 기록함¹⁾

- 1인당 GDP가 2만 달러에 진입한 시기는 다음과 같음
 - 1986년 : 스위스, 1987년 :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 1988년 : 핀란드, 일본, 미국, 1989년 : 캐나다, 1990년 :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1991년 : 네덜란드, 독일, 1996년 : 아일랜드, 영국 2003년 : 뉴질랜드, 스페인, 2004년 : 그리스, 2007년 :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2008년 : 덴마크

- 1인당 GDP가 2만 달러 진입했을 때 서비스산업이 총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기준으로 한국은 분석대상 24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함
 - 한국은 2007년 1인당 GDP가 21,653달러를 기록했으며, 이 때 서비스산업이 총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9.9%로 OECD 평균 54.2%에 비해 낮은 수준을 기록함
 - 한국(39.9%) 24위, 아일랜드(45.0%) 23위, 일본(46.1%) 22위, 핀란드(47.5%) 21위, 슬로베니아(48.0%) 20위를 기록함
 - 그리스가 65.6%로 1위를 기록했으며, 미국(60.7%), 뉴질랜드(58.5%), 영국(58.4%) 포르투갈(57.2%)의 순을 기록함

- 총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비중 기준으로 한국은 분석대상 24개국 중 19위를 기록함
 - 2007년 한국의 총부가가치 중 서비스산업 비중은 59.7%로 분석대상 평균 65.5%에 비해 낮은 수준임
 - 한국보다 작은 비중을 기록한 국가로는 핀란드(58.8%), 아이슬란드(52.5%), 아일랜드(56.7%), 일본(58.7%)이 있음
 - 그리스(75.7%) 1위, 포르투갈(72.9%) 2위, 미국(72.0%) 3위, 룩셈부르크(70.7%) 4위, 덴마크(69.3%) 5위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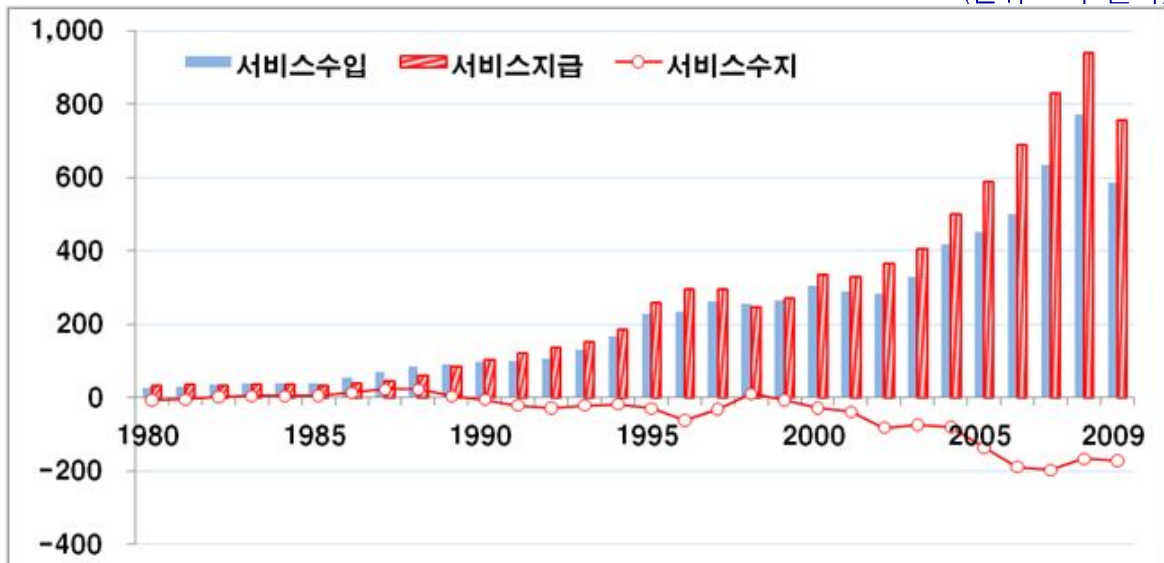
1) [별첨 1] 참조.

○ 2007년 서비스수지를 기준으로 한국은 OECD 분석대상 24개국 중 22위를 기록함

- 2005년 이후 급증하던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2008년 급감했으나, 2009년 이후 증가로 전환됨
 - 서비스수지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서비스수입보다 서비스지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 서비스수지의 적자 규모는 2004년 80.5억 달러에서 2005년 136.6억 달러로 급증한 이후 2007년 사상 최대치인 197.7억 달러를 기록함
 - 서비스수입과 지급은 2008년 771.8억 달러와 938.5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

< 한국 서비스수지 추이 >

(단위 : 억 달러)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한국은 캐나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등의 국가와 함께 서비스수지 적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적자 폭 기준으로 독일, 일본에 이어 3위를 기록함
 - 미국, 영국, 스페인, 룩셈부르크 등은 서비스수지의 흑자를 지속하고 있는 반면 독일, 일본, 한국, 캐나다 등은 적자를 지속하고 있음

- 독일과 일본의 서비스 적자는 축소되고 있는데 반해 한국과 캐나다는 증가하고 있음
- 2000년 일본의 서비스 적자는 458.6억 달러에서 2007년 현재 212.1억 달러로 크게 줄어들었으며, 이는 독일의 453억 달러보다 크게 낮았고 한국의 197.7억 달러와는 비슷한 수준임

< OECD 국가들의 서비스수지 추이 >

(단위 : 억 달러)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오스트리아	65.1	63.4	72.6	88.6	100.1	116.7	121.9	152.8
벨기에	-	-	20.2	18.1	36.3	49.8	62.7	66.0
캐나다	-38.9	-50.4	-46.0	-82.2	-84.8	-99.5	-122.9	-176.7
덴마크	28.8	30.2	22.6	35.3	33.1	63.9	68.1	76.1
핀란드	-22.5	-22.7	5.7	-6.7	6.1	-7.3	-11.0	10.2
프랑스	198.0	178.3	171.0	158.0	164.5	165.9	124.3	150.1
독일	-551.4	-541.5	-433.4	-507.8	-511.3	-471.7	-393.5	-453.0
그리스	80.5	78.7	101.2	129.8	192.0	195.2	192.4	227.1
아일랜드	-120.4	-120.7	-134.1	-125.1	-126.7	-115.7	-85.3	-39.9
이탈리아	10.5	0.3	-28.7	-26.6	14.8	-6.7	-15.9	-95.5
일본	-458.6	-427.0	-405.2	-312.4	-342.5	-239.7	-182.2	-212.1
한국	-28.5	-38.7	-82.0	-74.2	-80.5	-136.6	-189.6	-197.7
룩셈부르크	-	-	80.4	100.4	128.8	162.5	206.8	270.1
네덜란드	-8.7	-24.7	-10.4	2.0	51.7	75.4	98.1	134.3
노르웨이	19.1	23.9	18.3	17.1	28.9	-2.5	14.1	8.6
포르투갈	20.0	25.7	31.4	40.4	49.9	47.8	60.3	91.5
스페인	193.8	205.4	212.8	263.0	270.1	276.6	280.2	303.2
스웨덴	-23.5	-9.1	0.5	21.3	58.6	76.9	101.7	156.0
영국	207.7	197.3	232.9	312.9	474.5	449.6	589.0	779.8
미국	748.6	643.9	612.3	539.8	618.5	755.8	869.0	1,29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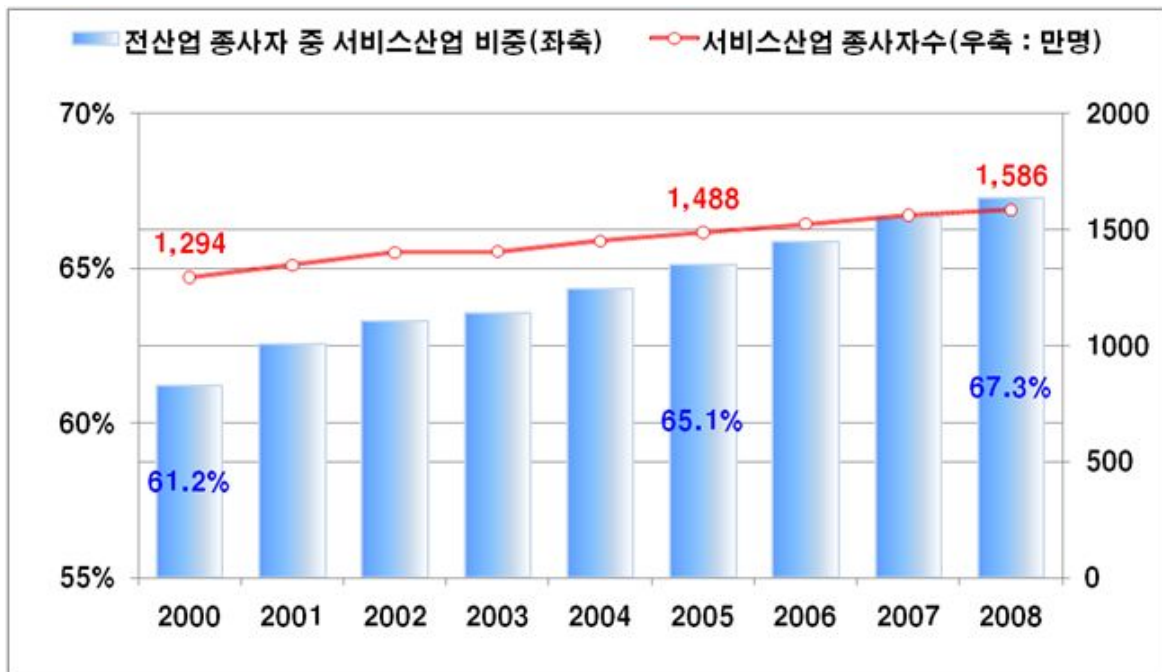
자료 : OECD STAN.

주. OECD 분석대상 24개국 중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스위스의 서비스수지 데이터 부재.

○ 서비스산업 종사자 수의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고, 전산업 종사자 중 서비스 산업의 비중은 OECD 국가 중 22위를 기록함

- 서비스산업 종사자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음
 - 서비스산업 종사자 수는 증가세를 보여 2000년 1,294만 명에서 2008년 1,586만 명으로 증가함
 - 반면 제조업 종사자 수는 2004년 429만 명을 기록한 이후, 2005년부터 감소세를 보여 2008년에는 408만 명을 기록함
 - 이로 인해 전산업 종사자 수 중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2000년 61.2%에서 2008년 67.3%로 6.1%p 상승함
 - 그러나 서비스산업 종사자 수의 증가율은 2001년 4.2%를 기록한 이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 최근 들어 하락하기 시작함
 - 서비스산업 종사자의 수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2005년 2.5%에서 2007년 2.4%, 2008년에는 1.5%로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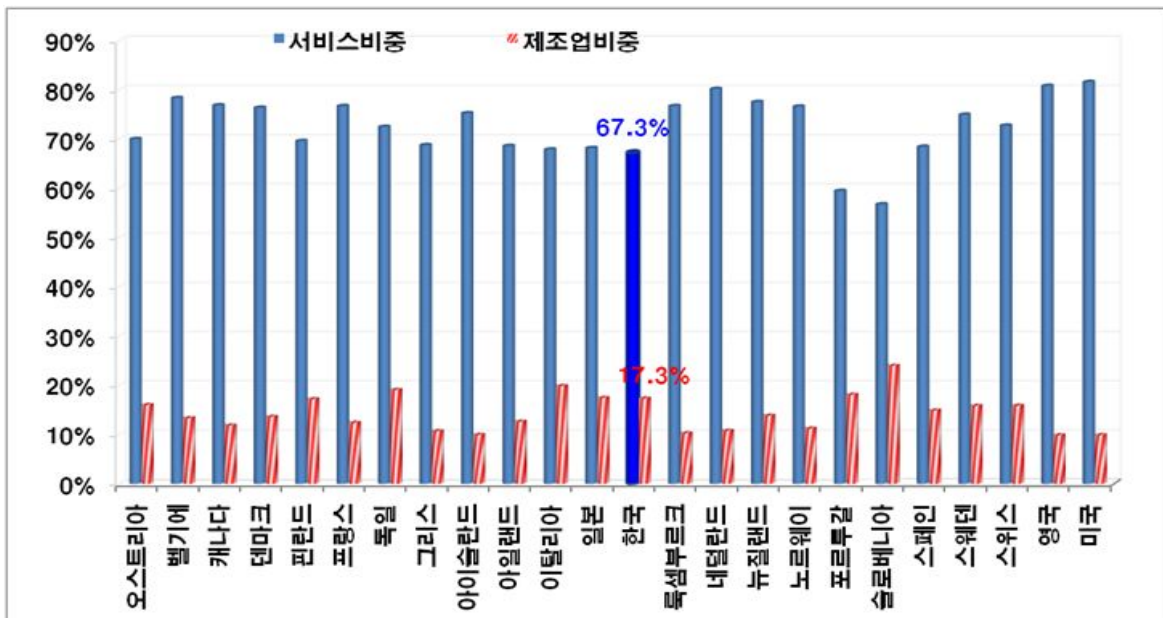
< 한국 서비스산업 고용 추이 >



자료 : OECD STAN.

- 2008년 기준 한국의 전산업 종사자 중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OECD 국가 중 22위를 기록함
 - 총 고용 중에서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가장 큰 국가는 미국(81.6%)이며, 영국(80.8%), 네덜란드(80.2%)를 기록함
 - 반면 총 고용 중에서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가장 작은 국가는 슬로베니아(56.8%)이며, 포르투갈 59.5%, 한국 67.3%를 기록함
- 2008년 기준 한국의 전산업 종사자 중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위를 기록함
 - 총 고용 중에서 제조업 비중이 가장 작은 국가는 영국(9.8%)이며, 아이슬란드(9.9%), 미국(9.9%)를 기록함
 - 총 고용 중에서 제조업 비중이 가장 큰 국가는 슬로베니아로 23.9%를 기록했으며, 이탈리아 19.8%, 독일 19.0%, 포르투갈 18.1%, 일본 17.4%, 한국 17.3%를 기록함

< OECD 국가들의 고용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산업 비중 추이(2008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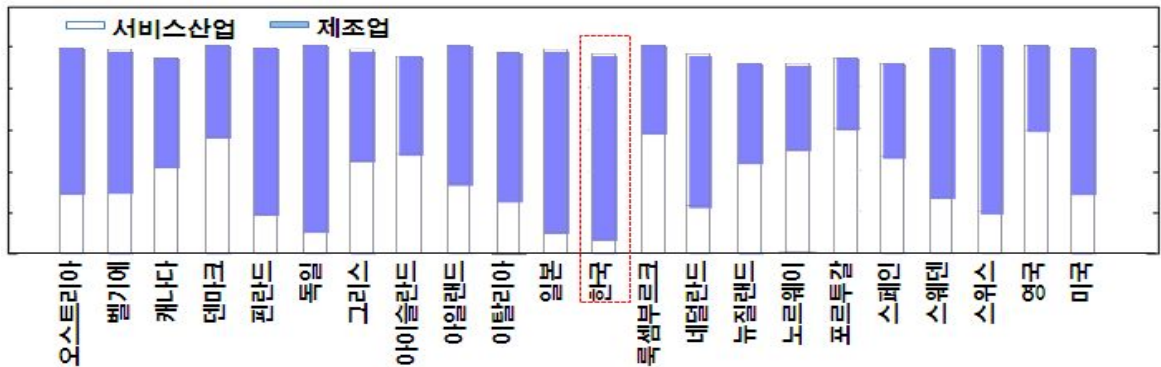
자료 : OECD STAN.

주. OECD 분석대상 24개국 중 캐나다, 일본은 2007년 기준, 포르투갈은 2006년 기준.

○ 한국의 R&D 중 서비스산업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함

- R&D 중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하락하고 제조업의 비중은 상승하고 있음
 - 한국의 연구개발비는 2001년 12조 2,736억 원에서 증가세를 보여 2006년에는 21조 1,268억 원을 기록함
 - 2001년 R&D 중 서비스산업 비중은 12.6%를 기록했으나 이후 하락하여 2006년에는 7.1%를 기록함
 - 2007년 한국의 전산업 R&D 중 서비스산업 비중은 7%로 OECD 분석대상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함

< 전산업 R&D 중 서비스산업과 제조업 비중(2007년, 민간 부문) > (단위 : %)



자료 : OECD Economic Surveys : Korea, 2010. 06.

주. OECD 분석대상 국가 중 프랑스와 슬로베니아의 데이터는 부재함.

- 설비투자 중 서비스산업의 비중 역시 하락하고 있음
 - 2006년 설비투자 중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40.5%를 기록했으나, 2009년에는 39.1%로 1.4%p 하락함

< 설비투자 중 각 산업의 비중 >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사업	건설업	서비스업
2005	3.1%	0.1%	53.8%	3.1%	1.7%	38.2%
2006	3.0%	0.1%	51.8%	3.2%	1.4%	40.5%
2007	2.9%	0.1%	52.4%	3.1%	1.3%	40.1%
2008	2.7%	0.1%	53.9%	2.9%	1.4%	39.1%
2009	3.8%	0.1%	51.1%	4.3%	1.6%	3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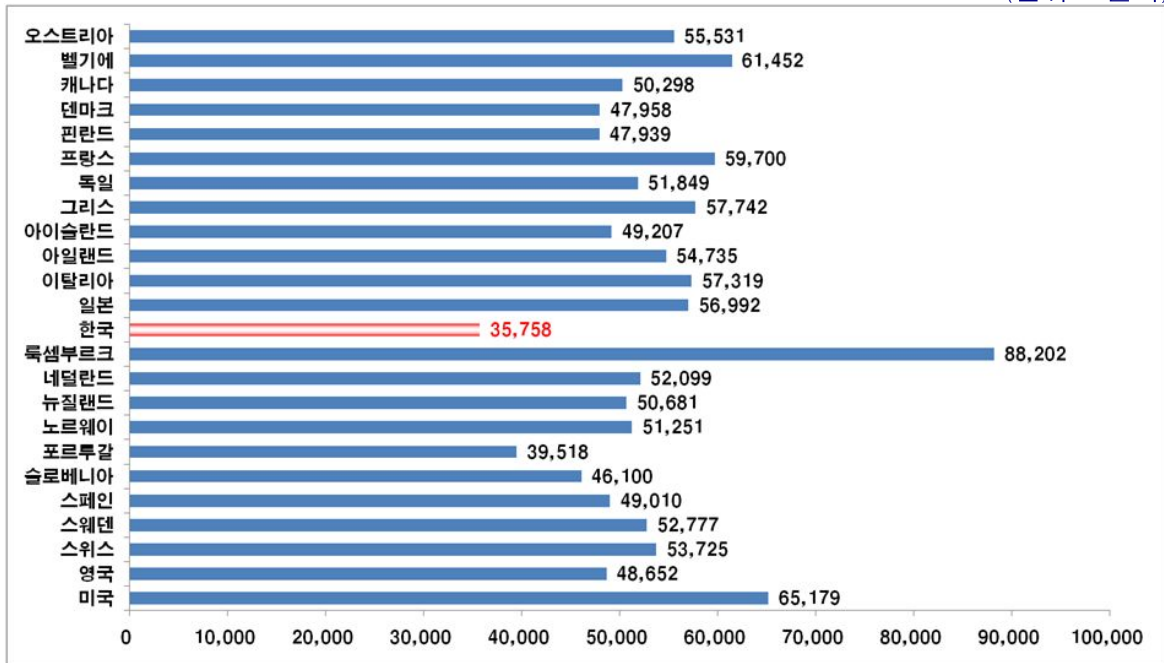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제조업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며,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함

-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제조업과 더욱 큰 격차를 보임)
 - 생산성은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를 의미하며, 2000년 기준 실질 부가가치를 통해 산출함
 -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2000년 3.2만 달러에서 2008년 3.6만 달러로 증가했으나, 격차는 더욱 확대되어 제조업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침
- 한국의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OECD 분석 대상 24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함
 - 2008년 한국의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포르투갈의 4.0만 달러에 못 미침
 - 서비스 생산성이 가장 큰 국가는 룩셈부르크로 8.8만 달러를 기록함

< OECD 국가들의 서비스산업 생산성(2008년) >

(단위 : 달러)



자료 : OECD STAN.

주 1. 생산성 = 실질 부가가치 / 종업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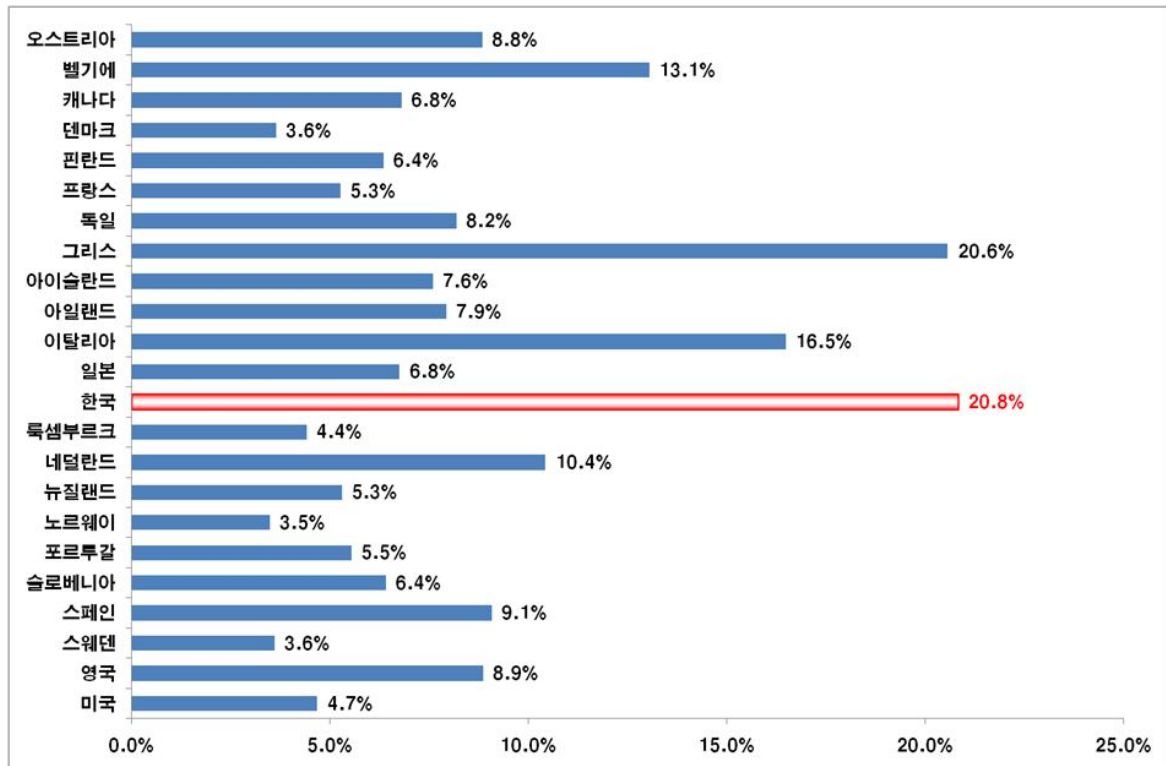
주 2. 캐나다, 일본, 미국은 2007년 기준, 포르투갈은 2006년 기준임.

2) 【별첨 2】 참조.

○ 한국의 서비스산업 중 자영업 비중은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고, 종업원 4인 이하 업체의 비중은 83.1%를 기록함

- 한국 서비스산업의 자영업 비중은 제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영세함
 - 2007년 한국의 서비스산업 중 자영업의 비중은 20.8%로 OECD 분석 대상국 중 1위를 기록함
- 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중 종업원이 4인 이하인 기업 비중은 83.1%에 달하지만, 이들 기업의 매출 비중은 17.2%에 불과함
 - 2008년 기준 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체 수는 79만 개이며, 이 중 1~4인 규모의 영세 기업은 66만 개로 전체의 83.1%를 기록함
 - 반면 서비스산업 중 4인 이하 기업들의 매출 비중은 17.3%에 불과함

< 서비스산업 중 자영업 비중(2007년 기준) >



자료 : OECD STAN.

주. 일본과 포르투갈은 2006년 기준임.

3. 정책적 시사점

○ 첫째, 서비스산업의 경제 기여도를 제고시켜야 함

- 한국의 서비스산업이 총산출과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있음
- 서비스산업의 경제 기여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을 확대해야 함
 -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제 기여도와 성장 가능성이 큰 서비스 업종을 육성해야 할 것임

○ 둘째, 서비스수지 적자를 축소시켜야 함

- 한국의 서비스수지 적자는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서비스의 대외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줌
- 서비스수지 적자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수입을 확대하고 해외로 유출되는 서비스 지급을 국내로 유입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가 큰 여행 서비스와 사업 서비스 수요의 해외 유출을 막고 국내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국제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셋째, 서비스산업에 대한 요소 투입 비중을 제고시켜야 함

- 한국의 서비스산업이 고용과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 중 각각 22위와 최하위(24위)를 기록함
-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중장기적으로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종에 대한 고용친화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산업은 무형의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R&D에 대한 세제 지원을 받기 어려우므로, 서비스산업에 대한 R&D 세제 지원 규정을 완화해야 할 것임

○ 넷째, 투입 대비 산출 및 부가가치를 확대하는 서비스산업의 효율성을 제고 시켜야 함

- 한국의 서비스산업 종사 기업은 영세하고 또한 생산성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한국 서비스산업의 국제 경쟁력은 취약함
- 서비스산업 종사 기업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한계 기업 퇴출과 창업 기업 지원을 활성화하고, M&A에 대한 세제 혜택 및 금융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대형화를 유도해야 할 것임
 -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ICT(정보통신기술 :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gy) 인프라 구축 방안 및 ICT 활용 시 세금 유대 및 자금 지원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임상수 연구위원 (happylims@hri.co.kr, 02-2072-6239)

【별첨 1】 국민소득 2만 달러 진입 시 경제의 서비스화 비교

(단위 : 달러, %)

	진입 시기	1인당 GDP	부가가치 비중	총산출 비중
한국	2007	21,653	59.7	39.9
오스트리아	1990	21,524	64.1	52.6
벨기에	1990	20,377	66.6	55.9
캐나다	1989	20,409	64.6	53.0
덴마크	2008	20,949	73.2	64.7
핀란드	1988	21,649	58.8	47.5
프랑스	1990	22,017	68.7	55.6
독일	1991	22,693	62.0	50.9
그리스	2004	20,922	75.7	65.6
아이슬랜드	1987	21,968	52.5	48.9
아일랜드	1996	20,411	56.7	45.0
이탈리아	1990	22,164	64.4	51.0
일본	1988	24,072	58.7	46.1
룩셈부르크	1987	22,284	70.7	59.6
네덜란드	1991	20,137	66.8	52.9
뉴질랜드	2003	20,017	69.9	58.5
노르웨이	1987	22,021	62.4	53.2
포르투갈	2007	21,084	72.9	57.2
슬로베니아	2007	23,578	62.9	48.0
스페인	2003	21,250	67.1	51.8
스웨덴	1987	20,414	64.0	55.5
스위스	1986	21,859	65.1	53.8
영국	1996	20,990	67.6	58.4
미국	1988	20,821	72.0	60.7
평균		21,461	65.5	54.2

자료 : OECD STAN.

- 주 1. 평균은 한국을 제외한 분석대상 23개국을 대상으로 함.
- 주 2. 벨기에 총산출 비중은 1995년 기준임.
- 주 3. 아일랜드 총산출 비중은 2000년 기준임.
- 주 4. 포르투갈의 부가가치와 총산출 비중은 2000년 기준임.
- 주 5. 스위스의 부가가치와 총산출 비중은 1990년 기준임.

【별첨 2】 한국의 서비스산업과 제조업의 생산성 비교

(단위 : 달러, %)

	서비스산업		제조업	
	생산성	전년대비 증가율	생산성	전년대비 증가율
1981	17,614	-0.1%	10,547	13.9%
1982	17,754	0.8%	10,582	0.3%
1983	18,790	5.8%	11,428	8.0%
1984	20,008	6.5%	13,234	15.8%
1985	20,014	0.0%	13,501	2.0%
1986	21,010	5.0%	14,988	11.0%
1987	22,389	6.6%	15,548	3.7%
1988	24,070	7.5%	16,619	6.9%
1989	24,802	3.0%	16,486	-0.8%
1990	25,486	2.8%	17,988	9.1%
1991	26,574	4.3%	19,365	7.7%
1992	27,272	2.6%	21,071	8.8%
1993	27,762	1.8%	23,351	10.8%
1994	28,468	2.5%	25,526	9.3%
1995	29,436	3.4%	27,945	9.5%
1996	30,060	2.1%	30,493	9.1%
1997	30,526	1.6%	33,607	10.2%
1998	30,326	-0.7%	36,091	7.4%
1999	31,334	3.3%	43,182	19.6%
2000	32,007	2.1%	47,564	10.1%
2001	32,154	0.5%	49,009	3.0%
2002	33,287	3.5%	53,620	9.4%
2003	33,773	1.5%	56,989	6.3%
2004	33,481	-0.9%	61,422	7.8%
2005	33,805	1.0%	66,093	7.6%
2006	34,428	1.8%	72,577	9.8%
2007	35,334	2.6%	78,671	8.4%
2008	35,758	1.2%	81,709	3.9%

자료 : OECD STAN.

주. 생산성 = 실질 부가가치 / 종업원 수.